

2017년 제2차 신입직원 현장연수 보고

방문 기관	연수 내용
12.19 (화)	

전남
곡성 미실란

- 곡성 ㈜미실란 이동현 대표 면담
 - 미실란은 친환경 발아현미 제조기술 개발, 상품화로 국내 기능성 쌀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가능성 제고
 -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과의 발아현미 품종개발 협력,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로개척 협력 및 개발 품종의 인근 농가보급 등을 통해 산·학·연·농민의 협력 모델 제시
 - 생산, 상품 제조·가공 외에 공연,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를 제시
 - 사업 초기, 농업·농촌 관련 지원정책 연속성의 중요성 지적



전남
장성 백련동 편백농원

- 장성 백련동 편백농원 김진환 대표 면담
 - 농림부 임업분야 '6차 산업인'으로 3대째 편백나무 숲 가꿈
 - 사업 초기부터 정부지원 없이 지역 편백나무 간벌목, 부산물을 활용하는 등 지역자원의 재활용 및 상품화 도모
 - 또한, 산·학·관·연 협력을 통한 기술지도·개발·이전으로 피톤치드 성분의 치약,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화에도 힘씀
 - 자체 묘목 관리로 편백나무 관련 사업의 지속가능성 추구
 -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제공으로 지역주민 참여 유도하여 유통·판매·체험·관광 시,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, 고용창출 및 소득 향상 도모



전남
나주 자향농장

- 나주 자향농장 노웅곤 대표 면담
 - 사)나주농어업회의소 사무소장
 - 나주 세지면 주요 재배품목은 멜론 및 배
 - 지역 6개 작목반이 연합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멜론을 생산/출하/공동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
 - 과거 UR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기존 경쟁력 있는 농산물 품목(배) 생산의 확실적인 전국화로 인한 생산량 증대는 국내의 소비량과의 불일치를 야기하여 주산지마저 손해 끼침
 - 전국화 결과, 배 수확시기를 두고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어 무분별한 GA생장촉진제 사용을 초래(일본은 지역별로 수확)
 - 지역별로 각기 특색 있는 품목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됨을 피력

